

한국방재학회 설립취지문

재해는 태풍, 홍수, 해일, 산사태, 가뭄, 지진, 화재, 유해물질의 방출, 그리고 이들 모두에 의한 환경파괴 등의 형태로 예고 없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재해현상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일례로 홍수 피해만을 보더라도 최근 10년('86~'95)간 연평균 사망자 수가 250여명, 이재민 수가 76000여명, 재산피해가 4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산상의 피해는 복구비를 포함하면 연간 직접 피해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진도 강진은 아니더라도 중소 규모의 지진발생이 최근 더욱 더 활성화 되는 것으로 관측되어 국력이 증대하면서 더욱더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도시시설물을 고려하고, 원자력 발전소, 첨단 국제공항, 초고층 빌딩, 고속철도, 장대교량, 그리고 다목적 댐 등 각종 대규모 시설물이 많이 건설되고 운용되는 현실을 돌이켜 볼 때 그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밖에도 화재에 의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 평균 5~10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여 농작물 및 용수공급에 막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가뭄, 대형 건물과 교량의 붕괴로 인한 인명의 손실, 대형가스폭발사고, 토양과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등 수많은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인명과 재산은 불행히도 자유롭지 못하다.

재해와 재난에 대하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경제적으로 예측 및 예방하고, 발생시 필요한 기술적 및 정책적인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설 및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도시방재과학기술의 확립 및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성 보장, 산업경제 활동의 보장,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해서도 마땅히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이며 선진문명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을 살펴보면 전담 연구기관의 부재와 연구 인력의 분산, 방재 기술의 공공성으로 인한 산업계의 참여 부족, 연구 투자 재원의 지속적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산되어 있는 기반시설물 방재, 건축물 방재, 도시하천 방재, 화재 방재, 도시환경 방재, 토양 방재, 하절기 자연강우 홍수 피해 방재, 도시방재 시스템등의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각종 재해 및 재난의 발생기구를 연구하고 예측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연구하며, 재해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시스템과 기술등에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효율적인 방재과학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고귀한 취지를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한국방재학회 발기인 일동